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지역 기관·단체 대표들이 지난 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청렴사회민관협약의 정기회의'를 개최한 뒤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 광주'를 염원하며 손팻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 광주' 맞손

29개 공공기관·단체 '청렴사회민관협약' 정기회의...공동이행과제·기관별 청렴실천과제 선정

광주지역 29개 공공기관·단체가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 도약에 힘을 모은다. 7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사회민관협약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4월 발족한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약의 회'는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 광주지역 29개 기관·단체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시민의 청렴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렴사회민관협약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에 청렴의식이 확산할 수 있는 공동이행과제와 기관별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공부문과 전지역 민간부문 의장 등 24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또 스포츠를 접목한 청렴캠페인 실천을 위해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를 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렴사회민관협약의회는 이날 '광주FC와 함께하는 광주 청렴데이 행사 개최'를 공동이행과제로 선

정하고, 오는 8월25일 광주FC 홈경기에서 청렴홍보 캠페인과 공동관람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광주 북구의 청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 광주'의 염원을 담은 손팻말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 실천을 다졌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청렴사회민관협약의회를 중심으로 1급수에도 열목어, 산천어, 비둘기 등의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광주가 맑은 물이 돼 열목어가 사는 세상이 되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기업 2곳, 중기부 '아기 유니콘' 선정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트코리아'·신재생에너지 '씨너지' 시장개척자금 3억 지급...올해부터 특별보증 최대 50억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 유니콘'에 광주기업 2곳이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 기업은 치료물질 전달용 의료기기 개발기업인 '바이오트코리아' (대표 장영준)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씨너지' (대표 진용남)이다. 바이오트코리아는 2021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남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40여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펀딩을 완료하고, 'CES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씨너지는 세계 기업의 주요 화두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목표로 클린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다. 아기유니콘 사업은 혁신성·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세계적 경

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3억원이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보증 최대 5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부터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세계적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기유니콘 기업 250개사, 예비유니콘 111개사를 선정·지원했다.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G-유니콘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정부는 물론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창업 초기 기업이 세계적 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민수당 수령하세요

시, 31일까지 연간 60만원

광주시는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할 수 있는 농업·농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농민공익수당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시에서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족·근중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8245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7월 31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 등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30만원권 2매)로 지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렴한 광주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지속가능 ESG 혁신경영 노력

광주도시공사는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1차 사후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O-37001은 조직 내 부패 관련 시스템의 계획 수립, 실행, 유지, 개선과 관련해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국제적 표준규격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020년 처음으로 인증받았으며, 이번 1차 사후 인증 자격 획득을 통해 5년 연속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패리스크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추진 결과에 대한 내부 심사와 경

영검토' 등 절차이행 확인을 통해 조직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적합성 여부를 심사했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청렴의 내재화로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K-CP(청렴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부서장 성과계약 반영, 상임감사제 도입 및 감사실 인력 증원 등 청렴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관련 법률과 제도 교육을 위한 청렴골든벨도 개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업 모집

시, 12일까지 접수...3년간 사업개발·판로개척 등 지원

광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참여기업 모집을 마치고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상담과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3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고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141개 기업에 408명의 인건비 58억원, 58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발굴과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곳 선정

엔아이디·예쁜손공예협동조합

광주시는 "2024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엔아이디, 예쁜손공예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우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내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총 26개 기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엔아이디(대표 강지창)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과 ESG경영 실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예쁜손공예협동조합(대표 안정민)은 엄마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예

기술 교육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광주시는 2개 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지원금과 경영·판로·홍보 등을 도울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선정된 선도기업들이 광주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